

古도심 역사의 발자취를 찾아서



HISTORY TRAVEL



古도심 역사의 발자취를 찾아서

1 부산 최초의 국가와 그들이 남긴 고분

1 노포동 고분군

청동기시대~삼국 초기의 유적이다. 노포동 고분군은 3세기에서 4세기까지 중심인 덧널무덤군으로, 삼한시대에서 삼국시대로 전환되는 과도기의 매장 문화를 보여준다. 덧널무덤은 평면 형태가 장방형에서 세장방형으로 바뀌고, 와질 토기 중심에서 도질토기가 등장하는 모습을 보인다. 특히 경주와 울산 지역을 주 분포 지역으로 하는 와질고배와 대부광구호, 대부직구호 등 진한계의 토기가 여러 점 출토되어 진한 지역의 집단체와 활발한 교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 동래패총

삼한시대 패총 유적이다. 동래패총은 1930년 철도공사 때 4개의 옹관(甕棺)이 발견되면서 알려졌다. 이 유적의 존속 시기는 대체로 3~4세기 전반경으로 추정되며, 특히 유물의 양이 많고 그 질도 우수하기 때문에 동래에 강력한 정치적 집단이 출현하는 전반기에 형성된 생활유적이라 할 수 있다.

3 복천동 고분군

가야 고분 유적이다. 동래 중심가 북쪽에 반달모양으로 에워싸고 있는 마안산(속칭 대표산)의 중앙부에서 남서쪽으로 길게 뻗어 나온 구릉상에 위치하고 있는 부산의 가장 대표적인 고분군이다. 복천동 고분군은 경주의 대형 고분을 제외하고는 함안의 말미산·도함리 고분군, 고령 지산동 고분군과 더불어 남부지역의 큰 고분군 중의 하나이며, 유물은 경주의 대형 적석목곽묘 다음으로 많은 양이 출토되었고 그 종류도 다양하다.

4 복천박물관

복천동 고분군에서 출토된 유물을 중심으로, 삼한시대부터 삼국시대까지 부산의 역사를 보여주는 고고전문박물관으로서, 현재 7차에 걸친 발굴조사로 밝혀진 169기의 유구와 각종 토기 및 철기류 등의 유물을 종합 전시하고 있다. 사적으로 지정된 복천동 고분군에서 출토된 풍부한 유물과 다양한 무덤 양식들은 아직 미지의 왕국으로 남아있는 가야의 신비를 푸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5 연산동 고분군

삼국시대 고분 유적이다. 배산에서 뻗어 나온 완만한 구릉에 위치하고 있다. 남북 방향 모두 18기의 고총고분이 일렬로 배치되어 있다. 온천천을 가운데 두고 건너편 복천동 고분군과 마주 보고 있는 형국이다.

6 반여동 고분군

삼국시대 유적이다. 발굴조사 결과 청동기 시대 주거지와 삼국시대 무덤이 발견되었다. 출토된 것으로 보아 유적이 축조된 시기는 5세기 후반에서 6세기 전반에 걸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철제 무기류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보아 수영강 일대를 관할하던 무장한 세력 집단의 분묘군으로 추정된다.



6 경성좌도 수군 총사령부, 경성좌수영

1 25의용단

임진왜란 당시 이 일대를 수호하다 순절한 25명의 충의를 기념하기 위해 만든 제단이다.

2 서문(수영평광비, 최한백 선생 기념비)

1998년 발굴조사 결과 서쪽 성벽의 일부가 확인되었다. 한편 서문 터와 서쪽 성벽 어간에 최한백 선생 기념비가 서 있다. 선생의 대표작으로는 「수영야류」가 있다.

3 수영산신당·독신묘

두 지붕 두 건물 사당으로 2018년에 세워졌다. 왼쪽이 수영산신당, 오른쪽이 독신묘이다.

4 복문 터

수영성마을박물관 인근에 있었다. 『내역지(萊蕨誌)』에 의하면 문루가 2층이었다고 한다.

5 동문 터

본디 수영 팔도시장 인근 근처에 세워져 있었다. 『내역지(萊蕨誌)』에 따르면 문루는 2층 문루에 웅성이 설치되어 있었다고 한다.

6 선소유허비

경성좌수영의 선소(船所)가 있던 곳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비로 수영구 수영동 현대아파트 103동 앞에 있다.

7 무민사·선서바위

무민사는 최영 장군을 모신 사당이다. 무민사 뒤쪽에 선서바위가 있는데, 임진왜란이 터지자 25의용이 비밀리에 회합하여 결사항전을 결의한 장소로 알려진 곳이다.

8 안용복 장군 사당

「수강사(守疆祠)」라고도 하며 안용복의 위패가 봉안되어 있다.

9 남문 터

남문은 주작문(朱雀門)으로 불렸다. 2층 문루에 웅성이 설치되어 있었다.

10 경성좌수영성 남문

흥에서 석문이 남아있다. 1972년 부산광역시 유형문화재 제17호로 지정되었다.

11 경성좌수사 선정비

수영민들이 좌수영에 부임했던 경성좌수사의 선행과 공적을 기리기 위해 세운 비석이다.

12 수영사원칙

전근대에서 현대까지 수영의 역사 및 민속자료를 한데 모아 전시하고 있는 곳이다.



2 부산의 전통 사찰과 제사 유적

1 범어사

신라 문무왕 18년(678)에 의상대사가 창건한 화엄삼찰(華嚴三刹) 중의 하나이다. 설화에 나타난 액자를 물리치기 위한 영험담은 부처님의 위신력으로 왜구를 막고자 하는 신앙적 기원과 사찰의 무력적 기반을 이용하고자 하는 국가의 의도가 결합된 것으로 범어사는 한국적 호국불교의 전형을 보여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2 만덕사지

고려시대 때 건립된 만덕사의 절터이다. 만덕사가 『고려사』에 언급된 사찰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지만, 고려 초기부터 조선 전기까지 부산에 존속하였던 대사의찰의 흔적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3 운수사

산이 높고 물이 깊다고 하여 운수사라는 절 이름이 지어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장전 아래로 많은 선승들의 수행 장소로, 또는 기도의 장소로 자리매김하였다. 운수사에는 보물로 지정된 운수사 대웅전과 부산광역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운수사 대웅전 석조 아래 삼존 좌상이 있다.

4 선암사

675년(문무왕 15) 원화가 건장사(健長寺)라는 이름으로 창건하였으며, 건장사는 뒷산 절벽 바위에서 신라의 국산(國山) 화령도들이 수련하였다고 하여 선암사로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5 마하사

5세기 아도(阿道) 화상이 창건하였다고 전한다. 하지만 임진왜란 때 사찰 건물이 모두 불탔고, 18~19세기 단계적으로 사찰의 모습을 갖추었다.

6 가야진사

전국대 시기 물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던 제사 유적으로 화령동 용담 마을에 있었다. 가야진사가 이곳에 있었던 이유는 동래와 김해를 잇는 교통로의 중심지였기 때문이었다.

7 동래 사직단

조선 후기 사직단으로, 토지 신과 곡물 신에게 제사 지내는 곳이다. 이곳의 사직단은 동래부에서 주관하였으며, 춘종(仲春, 음력 2월)과 추추(仲秋, 음력 9월) 두 차례 제사를 지냈다.

8 동래 관영도

조선 후기 관아의 사당이다. 동래 관영도는 남아 있지 않으나, 이와 관련한 고문서와 관영의 영정이 남아 있어 19세기 이후 동래 지역의 관영 숭배와 관련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7 부산의 '식민지 근대', 개발과 지배의 흔적

1 할아버지상

동래구 온천동 금융센터 건물 후측에 전차와 함께 서 있다. 1927년 10월 월 전차 종점 앞에 세워졌다가 1968년 5월 전차 운행이 중단되면서 농심호텔 쪽으로 옮겨졌다. 그러다가 2020년 현 위치에 전차 종점을 표시한 안내판을 세우고 할아버지상을 다시 본래의 자리로 옮겼다. 고바우 영감이라고도 불린다.

2 온천정 전차 종점 터

현재 할아버지상이 서 있는 일대가 옛 온천정 전차 종점 터였다. 전차 종점 터는 일제강점기 동래온천 개발과 그 궤를 같이한다. 온천폭을 일삼적으로 줄기는 일본인들을 위해 동래온천이 개발되면서 온천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온천동 역사가 생긴 것이다.

3 배래관 터

1907년 지금의 농심호텔 자리에 세워질 별장 겸 숙박 휴양시설이었다. 배래관 건립은 재조 부산 일본인의 동래온천 개발을 알리는 신호탄이자 조선인의 전통적 삶의 터전이 점차 해체될 것임을 예견하는 것이었다. 일제강점기 당시 규모나 시설 면에서 최고의 숙박시설이었다고 알려져 있다.

4 용각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용은 물을 주관하고 비를 부르는 신성한 존재로 여겨진다. 동래온천에 용을 모신 건물 즉 용각이 만들어진지 까닭을 짐작할 수 있다. 정면 3칸, 측면 1칸의 팔작지붕으로 구성된 목조 건물로 1991년 세워졌다.

5 온정개천비

용각 전면 후측에는 조선 후기 동래부사 강필기가 동래온천을 수축한 공을 기리기 위해 세운 온정개천비가 있다. 온정(溫井)은 온천과 같은 의미이다. 전근대 동래온천의 역사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유적으로 1972년 6월 26일 부산광역시 기념물 제14호로 지정되었다.

6 동래팔정

일본인 부자 하마타 후사타로(迫間房太朗)의 개인 별장으로 일제강점기 부산 최고의 별장이었다고 한다. 휴양공간이 미군 휴양소로, 6·25 전쟁 때는 부통령 관저로 사용되었다. 이후 고궁 유적으로 오랫동안 운영되어 오다가 현재는 대중음식점으로 변모하여 운영 중이다.

7 금강공원

부산에서 연초엽으로 크게 성공한 일본인 자본가 히가시바라 가지로(東原嘉次郎)의 개인 정원으로 만들어졌다. 그는 1930년 초반 일제의 시기 계획으로 철거된 이삼고비, 내주축성비, 암리루, 독진대아문 등을 이곳으로 옮겨왔다. 그런 점에서 금강공원은 식민지 지배를 상징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이곳에는 일본인이 만든 유물들이 많이 남아 있다. 동래금강원 표지석을 비롯하여 황기2600년 기념비, 금강 연로, 휴학탑이라고도 불리는 13층 석탑 등이 그것이다. 1940년 금강원으로 이름 지어졌다가 1965년 시민공원으로 개방하면 금강공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3 고을을 지킨 방패, 부산의 성곽

1 배산성지

배산(蓑山) 서봉 254m, 동봉 246m)의 두 봉우리와 7부 능선을 두르는 포곡식산성(包谷式山城)이다. 부산의 중심지가 대부분 조망되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입지하여 부산의 대표적인 삼국시대 산성으로 알려져 있다. 배산성지 내에 있는 2기의 집수지(集水池)는 모두 원형으로 3단의 계단식 호안석축(壕岸石築)을, 집수지 붕괴 방지를 위해 쌓은 석축 구조물)으로 둘러져 있으며 7세기대 신라가 축조한 산성에서 확인되는 집수지 구조와 거의 동일하다.

2 동래고읍성

지금의 동래읍성이 동래구에 축조되기 이전에 해운포에 있었던 읍성이다. 수영구 망미동의 현 부산지방방무청부터 포스코 더 아파트의 동쪽 끝까지, 서쪽 도로 건너 같은 면적이 동래 고읍성의 전체 범위에 해당한다. 고읍성이 폐성(廢城)이 된 원인은 잦은 왜구의 침입과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방방무청 북쪽에는 동래고읍성이었음을 알리는 표지판과 당시의 우물 2기가 복원되어 있다.

3 동래읍성

동장대가 있는 총렬사 뒷산에서 마안산을 거쳐 서장대가 있는 동래항과 뒷산까지의 구릉지와 현재 동래 시가지 중심지역인 평지를 일부 포함하는 지세에 전형적인 평산성(平山城) 형식으로 축조되어 산성과 평지상의 장점을 두루 갖춘 대표적인 읍성이다. 현존하는 성지(城址)를 중심으로 훼손·방치되었거나 유적(遺址)이 확인되는 것을 보수 복원하고, 남문(총렬대)에서 동래시장 진입로 입구), 서문(KT 동래지사 옆), 동문(동래고등학교 정문 앞), 암문(동래구청 맞은편)의 옛터에 표지석을 세워 문화유적지의 원위치를 보존하며, 교육적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4 동방현성지

고려시대 읍성 터이다. 동방현(東平縣)은 원래 삼국 시대의 대동현(大洞縣)으로, 경덕왕 때 동평현으로 이름을 바꾸었으며 갑화랑곡현(甲火良曲縣, 기장현)과 함께 동래군에 소속된 영현(領縣)이다. 동평현성은 고려시대에 동남해안 일대에 장월하는 왜구로부터 동방현의 주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축조한 읍성이다. 구릉지의 외곽을 중심으로 그 남쪽 평지 일대를 포함하는 남북 장축의 평면 타원형에 가까운 평산성(平山城)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는 이미 퇴비(廢圮)되었다는 기록으로 보아 1454년(단종 2)에서 1530년(중종 25) 사이에 폐성된 것으로 보이며, 최소한 조선 전기 이전까지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8 부산의 항일독립운동, 그 저항의 현장

1 동래고등학교

1898년 동래 기영회 회원들이 설립한 동래부학교로부터 시작되었다. 동래부학교는 개량학교에 흡수되고 다시 삼학학교와 병합되면서 동명학교로 변경되었다. 이후사립동래고등보통학교, 동래공립고등보통학교 등 여러 차례 교명을 변경하였고 1951년 동래고등학교로 개칭하였다.

2 박차정 의사 생가

박차정은 동래 출신의 대표적인 여성 독립운동가. 신간회와 의열단, 조선민족혁명당과 조선의용대에서 활약하였다. 의사의 생가는 동래고등학교 정문에서 멀지 않아 찾기 쉽다. 2005년에 복원되었다.

3 동래 만세 거리

1919년 3월 13일 동래시장에서 일어난 동래 만세 운동을 기리기 위해 지정한 거리 명칭이다. 공간적으로는 동래읍성 남문 터와 동래시장 주변을 아우른다. 그 공간 가운데 중추 지점에 표지석을 두어 동래 만세 거리의 정소성과 역사성을 더욱 부각하고 있다.

4 일성관 터

1920년대 동래 지역 항일 운동의 메카였다.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북산동 행정복지센터가 들어서 있다. 주차장 쪽에 동래 일성관 표지석이 있다.

5 부산 3·1운동 독립기념탑

동래읍성 북장대 어간에 위치한 기념탑으로 1996년 광복 50주년을 기념하여 세워졌다. 삼각형 모양의 상징탑과 내부 조형물로 꾸며져 있다.

6 범어사 3·1운동 유공비

1919년 3·1운동 당시 범어사 명정학교 및 지방학림 학생과 불교계 인사들이 주축이 된 민선운동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유공비다. 중앙에 태극기 있고 이것을 감싸며 합창하는 손 모양을 하고 있다.

7 범어사 학생 3·1운동 유공비

명정학교의 맥을 잇고 있는 현 금강중학교 교정에도 범어사 3·1운동을 기리는 유공비가 있다. 1970년 3월 1일에 세워졌다고 한다.

8 박차정 의사 상

금정구 문화회관 옆 만남의 광장에 있다. 박차정 의사가 졸업한 일신여학교의 후신인 동래여자고등학교가 1987년 금정구로 옮겨왔기에 이곳에 세워진 것이다.

9 부산 항일 학생의거 기념탑

1940년 부산 항일 학생 의거 이른바 노다미 사건을 기리기 위해 2004년 부산 어린이 대공원에 세운 기념탑이다.

4 옛 부산의 중심지 '동래'의 기억과 사랑

1 임진왜란의 총

임진왜란 때 일본의 침략에 맞서 의연히 일어나 동래읍성을 지키다가 순사(殉死)한 이름 없는 성민들의 유해를 거두어 만든 무덤이다.

2 동래읍성남문 터

동래읍성 남문을 무너무라 하였다. 앞뒤 이중의 익성 구조로 앞쪽은 세방문, 뒤쪽은 주조문이라 불렀다.

3 동래경찰서(농수산 터)

동래읍성을 지키다가 여러 선열들의 총정을 기리기 위해서 동래 부사 이안눌이 동래성 남문 밖 야산인 농수산에 제단을 설치하였다. 1925년 제단을 헐고 동래경찰서가 세워졌다.

4 동래읍성임진왜란역사관

부산 도시철도 4호선 수안역에 건립된 임진왜란 당시의 동래읍성 전사관이다. 우리나라 발굴 역사상 최초로 철도 역사(驛舍) 안에 만들어진 전사 전시관이다.

5 동래읍성 서문 터

동래읍성 서문에는 성문 보호를 위해 읍성을 부설하고, 성곽 둘레에는 장대·망루·보루 및 치성 등을 갖추고 있다. 성벽에 채성 위에 미석을 얹었고 그 위에 여장을 쌓은 구조였다.

6 장관정

조선 후기 동래부 청사 건물의 하나로 군장관(軍將官)들의 집무소이다. 현재 남아 있는 상량문(上樑文)에 의하면 1815년 3월에 현재의 위치로 옮겨 온 것으로 보인다.

7 동래부 동헌

동헌은 일명 아헌(衙軒)이라고도 하며, 조선시대 수령이 직접 공무를 처리하던 곳으로 이청, 무청, 향청 등의 중심이 되는 중요한 건물이다.

8 객사

조선시대 동래부의 출장 관리 숙소이다. 본래 출장 관리들이 먹고 자게 하던 숙소인 봉래관(鳳萊館)이 있었으나, 일제강점기에 허물어졌다.

9 송공당

1742년(영조 18) 동래부사 김석일이 임진왜란 때 동래부사 송상현 공이 순절한 정원루(靖遠樓)의 옛터에 설치한 단(壇)이다.

10 내주정영

동래부사 정언설(鄭彦設)이 임진왜란으로 폐허가 된 동래읍성을 대적으로 수축한 사실을 기념하기 위하여 1735년에 건립한 비이다.

9 동래의 경제공동체에서 재벌까지, 부산 산업의 요람

1 동래은행 터

일제강점기 동래 지역 유지들이 중심이 되어 설립한 민족은행이다. 현재는 동래은행 옛 모습을 찾을 수 없지만 기록에 의하면 동래읍성 남문 인근에 있었다고 한다.

2 고 정산 김병구 선생 추모비

김병구는 동래은행의 첫 지점장이었고 이후 상무를 역임하고 은행 운영에도 관여했다. 해방 후 초대 경상남도 도지사로 역임하고 부산 대학교 설립에 크게 이바지했다. 이러한 김병구의 행적을 기리고자 세운 추모비로 동래유치원 안에 있다.

3 우정촌 기념관

우정촌 기념관이 자리한 곳은 육종창가 우정촌이 원예시험장을 창설한 후 직접 연구를 행하던 장소였다. 그가 타계한 후 원예시험장이 이전하자 이곳에 우정촌 박사의 충신을 세웠다고 우정촌 박사 탄생 100주년을 1999년에 이르러 기념관이 설립되었다.

4 조선건축터

조선건축은 일제강점기 건축을 회사였던 조선건축에서 시작되었다. 해방 후 김지태가 관리하다가 1949년 조선건축으로 명칭을 변경했고, 2년 후에는 이승만 정부로부터 회사를 불허받았다. 산업화 시기 부산의 공공공을 선도했던 대표적인 기업이었다.

5 대양고무터

한때 부산의 5대 신발 제조사로 이름을 떨쳤던 기업이었다. 대표적인 상품으로 수피카미트가 있다. 1953년 대양고무공업사로 출발한 대양고무는 정포동에 안창학연구소 사산을 확장했다. 지금의 충성현 광장 옆 서면한신아파트가 옛 대양고무가 있던 자리였다.

6 진양화학 터

한때 한국 신발업계를 주름잡았던 국제상사 양정모 회장의 동생인 양규모가 부임중에 세웠던 신발업체이다. 진양과 왕지화가 진양화학의 대표 브랜드였다.

7 부암동 철길마을

부암동 일대는 신발, 제과, 화학, 목재 등 부산 경제를 넘어 한국 경제를 주름잡았던 많은 기업이 있었던 곳이다. 산업화 시대 부산 노동자의 생활상을 엿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곳이다.

8 리화학화학 터

현 LG화학의 모체로 1947년 서구 대신사에서 화학품 제조업 회사로 출발하였다. 서면에 있는 LG디스커버리 빌딩이 리화학이 있었던 자리다.

9 제일제당 터

1953년 부산진구 부전동에 설당 제조 및 판매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원조제과기 3백식업을 이끌던 대표적인 회사이자 현 삼성그룹 최초의 제조업체였다. 현재는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어 옛 모습을 찾기 힘들다.



5 18.845km, 전국에서 가장 긴 성벽을 가진 금정산성

1 금정산성부설비

동래부사 오한원의 건에 따라 금정산성을 대적으로 보수하여 산성의 면모를 새롭게 한 사실을 기념하기 위해 세웠다. 현재 금정구 벽산 블루밍 아파트 단지 내 공원에 있다.

2 제2망루

동문 남쪽 약 2.5km, 남문 동쪽 약 400m 지점의 해발 545m의 동제봉에 있으며, 치 모양으로 튀어나온 부분에 담장을 쌓고 정면 2칸, 측면 1칸의 맞배지붕의 망루로 복원되었다.

3 남문

평지식문으로 문폭은 290cm, 높이는 280cm이며, 육축의 폭은 480cm이다. 문의 상부에는 정면 3칸, 측면 2칸으로 익공계 팔작지붕의 단층 문루이다.

4 동문

흥예식문(虹翼式門)으로 정면 3칸, 측면 2칸의 팔작지붕의 단층 문루이며 문폭은 300cm, 흥예의 높이는 340cm이다.

5 제3망루

정면 2칸, 측면 1칸의 맞배지붕으로 동문 약 1km 지점 남평리지 암벽 위에 있다.

6 충성(제4망루)

충성과 합류되는 지점에 위치한다. 담장을 쌓고 정면 2칸, 측면 1칸의 맞배지붕의 망루로 복원되어 있다.

7 북문

금정산성의 4문 가운데 북문이 가장 투박하고 거칠다. 이 성문에는 아이형의 장식도 없고 규모도 다른 성문보다 작다.

8 궁청사

1703년(숙종 29)에 금정산성 중흥을 쌓은 후 궁청사를 청하였다.

9 금정진 관아 터

1707년 동래부사 한배하가 금정산성의 중흥을 쌓으면서 건립한 것이다.

10 김시도공 영세불발비

발장 김시도가 산성비를 일대의 토지와 관련된 세금을 면해 준 공덕을 기리기 위한 비이다.

부산 **古도심** 문화탐방 지도

BUSAN, 百聞or不如一見

古도심 역사의 발자취를 찾아서

- 1 코스 부산 최초의 국가와 그들이 남긴 고분
- 2 코스 부산의 전통 사찰과 제사 유적
- 3 코스 고을을 지킨 방패, 부산의 성곽
- 4 코스 옛 부산의 중심지 '동래'의 기억과 사명
- 5 코스 18.845km, 전국에서 가장 긴 성벽을 가진 금정산성
- 6 코스 경성좌도 수군 총사령부, 경성좌수영
- 7 코스 부산의 '식민지 근대', 개발과 지배의 흔적
- 8 코스 부산의 항일독립운동, 그 저항의 현장
- 9 코스 동래의 경제공동체에서 재벌까지, 부산 산업의 요람
- 10 코스 길 위에서 문화와 호흡하다
부산, 마을이 닿은 자리가 문화이 되는 곳

